

전통자수 45년사 박미애 작가 전시회

17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 전시실서 보자기·병풍·거울·화첩도 등 역대 수상작 전시

고창 미술협회 박미애 지부장의 전통자수 45년사 역대 수상작을 모은 전시회가 고창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전시회는 일상 속에서 사용했던 자수 공예품들을 바늘 한 뼘, 한 뼘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북도 미술대전 특선, 신사임당 대회 장원 등 기타 공예대전에서 다수 수상한 보자기, 병풍, 거울, 화첩도 등을 선보인다.

아람 박미애 선생은 어머니(최희인순)의 뒤를 이어 3대째 전통공예 가업을 잇고 있다. 중요 문화재 한상수 자수장에게 전통자수를 사사받아 현재까지 고창의 전통과 멋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고창전통자수 대표로 공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미애 지부장은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전통자수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치유문화도시 고창 조성을 위해 지역미술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시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고창 미술협회 박미애 지부장의 전통자수 45년사 역대 수상작을 모은 전시회가 고창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를 끝내야 입장 가능 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 인형극·마임극 순회공연 펼친다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7개 시·군서 18회·어린이창의체험관서 7회 총 25회 진행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의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이 드디어 첫 공연을 시작한다.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은 도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증진과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각 시군으로 찾아가 인형극과 마임극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다.

순회공연은 총 25회로 김제, 익산, 완주 등 7개 시·군에서 18회,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7회가 진행된다.

극단의 첫 공연은 7일 오전 10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뤄진다.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에서 이뤄지는 공연은 10월에 총 7회에 걸쳐 열린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어린이창의체험관(063-290-6681)으로 하면 된다.

김정호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회가 줄었다"라며, "이번 순회공연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 증진 기회를 되찾아 주는 한편, 방역을 철저히 해 순회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기자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찾아가는 상상누리극단'이 드디어 첫 공연을 시작한다. 순회공연은 총 25회로 김제, 익산, 완주 등 7개 시·군에서 18회,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7회가 진행된다.

식물세밀화 교실 수강생 모집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오늘부터 방문·이메일 접수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이 식물세밀화교실을 운영기로 하고,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물세밀화는 식물이 가진 과학적 특징을 관찰해 섬세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그리는 이의 예술적 감각이 가미된 예술작품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식물세밀화의 역사에서부터 관찰 기법, 사진촬영 기법, 기초 삼국기, 스케치 방법, 채색 기초, 식물노트 작성하기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이뤄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반려식물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최근 식물을 키우며 교감하고 심리적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식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교육에 반영한 것이다.

반려식물을 그리면서 관찰력과 색채감, 조형적인 감각이 길러지며 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좌는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무료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7일부터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참여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nhm@jnu.ac.kr)로 보내면 된다.

박진호 관장은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잎, 줄기, 꽃 등 식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기 실습을 통해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욱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군산시 등록문화재 주간 운영·개막식·기획전시·학술세미나 등 개최

군산시의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원도심 일대에서 기념행사를 오는 8월 10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원도심 일원에서 오는 8월 10일에서 8월 15일 6일간 등록문화재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국가등록문화재 기획 전시, 시·군내 등록문화재 체험행사,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8월 12일에서 13일 2일간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개막식,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인문학 포럼, 군산이행과 연계한 지역문화유산 투어를 개최해 행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대역사문화의 대표도시인 군산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더욱 힘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 보존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일 '노래로 떠나는 팔도유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7월 첫 문화공연으로 '노래로 떠나는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4일 오후 7시 박물관 3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대를 이어 가수로 활동하

는 김정호·김태욱 부자가 여행의 안내자가 되어 전국을 유람한다. 아울러 대중음악사학자인 장유정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가 전국 팔도 대표 노래를 소개하고 김정호·김태욱 부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제 강점기에서 최근까지 커버하는 노래는 물론 트로트, 블루스,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 노래 중 전국 팔도를 상징하는 8곡을 선정한 선보인다. /뉴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